

# 맞벌이 가구의 출산·육아 문화를 바꿔야

우남희 소장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은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무른 채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시 어려움도 그대로 남아있다.

2016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520만 6천 가구(43.9%)이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38.1%로, 초등과 중등학교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의 맞벌이 가구 비율보다 훨씬 낮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남자(46.7시간)가 여자(40.9시간)보다 약 6시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많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하는 것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다는 것인데,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일수록 자녀 양육 부담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현상이 발생하거나, 젊은 맞벌이 부부가 이전보다 자녀를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출산을 가로막는 돌봄·양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늘리고,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제나 근무시간을 단축·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다. 특히 2013년부터는 만 0~5세 전 연령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등 재정투입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실 수요층인 맞벌이 가구들이 직장이나 보육·교육서비스기관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겪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볼 수 있었다. 지난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모가 눈치를 덜 보고 자녀를 필요한 시간만큼 맡길 수 있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재정과 서비스 지원을 늘리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해결될지는 알 수 없다. 출산의 문제는 생애초기의 과도한 양육·교육 비용 뿐만 아니라, 이후의 오랜 교육투자와 늦은 취업으로 인한 만혼화, 고령화에 따른 노후비용의 급증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과거에도 힘들었으나 여성의 취업이 늘고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이나 취업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직장보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더는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눈치 보거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남성들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기관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유아가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정 내 양육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지난 4월말부터 4회에 걸쳐,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라는 주제로 「자신만만 행복육아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자녀양육이 힘들지만 가치 있고,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다시하기 어려운 귀한 경험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육의 어려움과 지원 정책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였다.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행복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어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쁘고 행복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는 출산·육아 문화의 공유 및 확산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일과 가정을 모두 제대로 유지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출산·육아가 더욱 힘들고 부담스럽기에 이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여 이 시기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육아문화를 확산시키는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의 출산·양육 문제는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러므로 출산장려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지속적 재정투입과 제도개선은 필수적이거나 출산·육아에 대한 인식과 문화 변화도 강조되어야만 한다.